법령 제·개정 동향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국토교통부령 제1601호, 2026. 7. 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의 수급·교육훈련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품질관리,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조종사가 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운항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6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① 법 제89조의2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이하 "항공교통업무등"이라 한다)의 품질관리 2. 항공지도의 품질관리 3. 항공교통업무등의 수행과 관련된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군 기관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22호, 2026. 7. 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과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와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1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
〈신 설〉	13.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나.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23조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국내외 ITS 월간토픽

2026년 7월은 글로벌 차원의 안전·디지털 정책 정립과 더불어 지자체 현장 중심의 AI 및 C-ITS 실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구현된 한 달이었다.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는 자율주행버스 실노선 운행, C-V2X 대중교통 우선신호, AI 기반 생활밀착형 안전 관제 구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특히 개막 100일을 앞둔 강릉 ITS 세계총회를 기점으로 첨단 교통 인프라의 실질적인 상용화와 기술 고도화가 더욱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국내 토픽

구미시, “국가산단 교통 AI로 뚫는다”…106억 들여 ITS 구축

경북 구미시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AI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도입해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 효율화를 추진한다. 구미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사업’에 선정돼 국비 59억원을 포함한 총 106억원을 투입, ITS 고도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와 주요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개선하고 물류 수송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쿠키뉴스, 2026.7.7.)

밀양시, AI 행정 혁신으로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기틀 마련

경남 밀양시가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밀양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핵심에 대해 “기존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던 스마트 솔루션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 분석할 수 있는 ‘지능형 엣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통합 중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도시 계획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는 주차 공유 시스템, 복합 센터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가공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2026.7.7.)

인천 송도 11-1공구에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2028년 완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사업지인 송도 11-1공구에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교통, 방범·방재, 환경, 시설물관리 등 주요 공공기능에 ICT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CCTV, 스마트 횡단보도, 쿨링미스트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8년까지 스마트도시 기반서비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NGO신문, 2026.7.8.)

"자율주행·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모든 것"...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100일 앞으로

오는 10월 19일 개막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행사가 열릴 강릉컨벤션센터가 다음 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릉시는 컨벤션센터와 동계올림픽 시설 등을 연계해 문화 행사와 ITS 기술 시연 및 시찰 등을 준비 중이며, 전체 전시 부스의 93.5%가 마감되는 등 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릉시는 90여 개국에서 연인원 20만 명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남은 기간 차질 없는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MBC강원영동, 2026.7.9.)

동두천시, 경기도 'CCTV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동두천시 CCTV관제센터가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CCTV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스마트 관제 역량을 입증했다. 동두천시는 '학생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등·하교 집중관제 운영'을 주제로 아동 안전 취약시간대 집중관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화각 개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의 성과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우수사례를 직접 발표한 이지수 주무관은 전문성과 발표 역량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뉴스투데이, 2026.7.9.)

AI·방산·미래차 시대 '시험인증 주권' 경쟁… KOLAS, 국가 경쟁력 핵심 인프라로 부상

AI, 미래모빌리티, K-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 신뢰성과 시험인증 확보가 핵심 수출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제 인정체계가 'Global ACI'로 통합되며 한국인정기구(KOLAS)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적합성평가 및 디지털 인증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KOLAS를 중심으로 시험인증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데일리, 2026.7.10.)

김제시, 2027년까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전북 김제시가 2027년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고도화하고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 체감형 교통복지 실현에 나선다.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초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로 발전시키는 한편, 스마트 냉난방기와 대중교통 어울림 쉼터 등 승강장 이용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아울러 도심 내 불법 밤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동 일원에 268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이며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한스경제, 2026.7.11.)

용인시, 초교 통학로 17곳에 AI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경기 용인시가 오는 9월까지 10억 4천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 통학로 17곳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로 보행자와 차량을 실시간 추적해 보행 시간이 부족한 교통약자를 감지하면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고, 위험 상황 시 전광판과 음성 경고를 전파해 사고를 예방한다. 앞서 지난 6월까지 29곳에 구축을 마친 용인시는 향후 노인보호구역 10곳으로도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6.7.14.)

AI가 미아·치매노인 몇초 만에 찾아내…안양시 첨단행정 '최우수'

경기 안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방범 CCTV 분야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서 'AI·복합 인지 기술 기반 실종자 동선 추적 및 구조 서비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시스템은 실종자의 사진이나 의상 특징을 입력하면 AI가 수천 대의 CCTV를 실시간 분석해 이동 경로를 예측·추적하는 첨단 기술이다. 분석된 위치와 동선은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에 즉시 공유되어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며, 시는 향후 데이터 통합 관제 역량을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일보, 2026.7.13.)

ITS 세계총회 D-100… 강릉시, 시민사회와 결의대회 열고 성공 개최 다짐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100일을 앞두고 강릉시와 지역 시민사회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붐 조성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민 참여와 손님맞이 준비를 다짐하며 대통령 및 주요 인사에 '대통령 참석 요청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첨단 ITS 기술 전시와 미래 모빌리티 시연, 다채로운 문화행사 등이 무료로 운영된다. (강원신문, 2026.7.16.)

안양시, 폴란드 통계청 방문단에 스마트도시 기술 선봬

안양시가 15일 폴란드 통계청장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로 구성된 방문단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도시 운영 모델을 선보였다. KDI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일행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둘러보고 레벨4 자율주행버스 탑승을 비롯해 AI 영상분석과 지능형교통체계(ITS) 등 다양한 행정 적용 사례를 확인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데이터가 미래 도시 운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안양시가 축적한 스마트도시 기술과 행정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뜻을 전했다. (비즈월드, 2026.7.15.)

남양주시, 방범용 CCTV 월 256건 수사·행정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올 상반기 시내 방범용 CCTV 영상 1,536건을 수사와 행정 목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교통조사가 약 38%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 강력범죄, 실종사건 등 위급 상황의 초동대응에 활용되어 77%의 사건 완료율을 나타냈다. 현재 1,983곳에서 6,452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 중인 남양주시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시내 범죄 예방 및 사고 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6.7.15.)

서울 택시와 로보택시, 공존의 길은 어디인가

서울 택시 산업이 자율주행 기술의 접목과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두고 요금체계, 면허제도, 번호판 관리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현재 로보택시의 운임과 사업 유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택시 면허 활용 및 플랫폼 사업 연계 등 현실적인 협력 모델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로보택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명확한 법·제도 정비, 안전성 확보, 기존 운수 종사자와의 상생 및 고용 안정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신문, 2026.7.15.)

용인특례시, 자율주행버스 시범노선 '용인A01번' 시승식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동백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자율주행버스 시범노선인 '용인A01번' 시승식을 갖고, 올 3월부터 이어진 시험운행을 거쳐 안전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역, 동백이마트, 동백도서관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오는 27일부터 14인승 중형버스 2대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무료로 운행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이번 운행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중교통 소외 지역까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유상 운송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2026.7.19.)

수원시, '2026 대한민국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박람회'에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알렸다

수원특례시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제6회 대한민국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박람회'에 참가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다양한 드론 활용 정책을 홍보했다. 수원시는 홍보부스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반 조성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오는 8월 1일부터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저수지 일원에서 시작되는 도심 공원형 드론배송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수원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종합뉴스, 2026.7.18.)

청주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미래 10년 스마트 교통 로드맵 확정

충북 청주시가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2026~2035)'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10년간의 스마트 교통 로드맵을 확정했다. 시는 단기(2026~2028년)적으로 노후 장비 교체 및 생활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확충하고, 중장기(2029~2035년)적으로는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세대 ITS(C-ITS),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반 정체 제어, 스마트 횡단보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등 도시 특성에 맞춘 4개 영역의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중도일보, 2026.7.22.)

해외 토픽

EU, 차량에 운전자 주의 산만 경고 기술 의무화

유럽연합(EU)의 일반안전법규(General Safety Regulation, GSR) 중 운전자 주의 산만 경고 관련 요건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7월 7일부터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첨단 운전자 주의 산만 경고(ADDW) 시스템' 탑재가 의무화되었다. 이 규정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과 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유럽 전역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기술이 기본 안전 사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tti, 2026.7.7.)

독일 베를린시, 대중교통 우선신호 위해 C-ITS 기반 신호제어 시스템 최초 도입

독일 베를린시 모빌리티·교통·기후보호·환경부(SenMVKU)가 슈테글리츠 슐로스슈트라세 구간 신호등 8곳에 대중교통 우선신호 제어를 위한 C-ITS(협력형 지능형교통체계) 기반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단방향 신호 요청에 그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ITS-G5 무선 표준을 활용한 양방향 실시간 통신을 구현함으로써, 버스와 신호 인프라 간 정밀한 신호 연동과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베를린 대중교통공사(BVG)는 7월 9일부터 시범 운행 및 실증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베를린시는 향후 긴급차량 우선신호, 우회전 자전거 사고 예방, 자율주행 인프라 연계 등으로 C-ITS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베를린시 모빌리티·교통·기후보호·환경부, 2026.7.10.)

싱가포르, 대중교통·항만·항공·물류 전반에 자율주행 기술 도입 가속화

싱가포르 정부가 교통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주행 차량(AV)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부터 풍골 지역의 자율주행 셔틀 및 마리나베이·원노스 일대의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을 시작하며, 투아스 신항만과 창이공항에서는 무인 자동유도차량(AGV)과 자율주행 수하물 견인차 등을 배치해 원격 관제 기반의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물류 및 미화 분야에도 자율주행 운송차와 무인 노면청소차를 시험 도입해 공급망 생산성 향상과 작업 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정부, 2026.7.12.)

웨이모, 워싱턴 D.C. 로보택시 승인 시 수백 명 고용·투자 확대 계획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Waymo)가 워싱턴 D.C. 시의회의 로보택시 승인 법안 논의를 앞두고 서비스 센터 구축 및 대규모 고용 창출 계획을 밝혔다. 웨이모는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 D.C. 내 서비스 센터와 충전 시설을 구축 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차량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수백 명의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반면 지역 노동조합과 운전자 단체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타격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며 법안 저지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Axios, 2026.7.13.)

우즈베키스탄·라트비아, 2027년 도로 운송 허가권 쿼터 2배 확대 합의

우즈베키스탄과 라트비아 도로 운송 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가운데, 양국이 2027년 도로 화물 운송 허가권 쿼터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수송 기업들의 라트비아 및 유럽연합(EU) 시장 대상 화물 운송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추가 허가증을 발급하기로 했으며, 물류 분야 디지털화, 통관 절차 개선, 유럽교통장관회의(ECMT) 다자 허가제 통합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트렌드 뉴스 에이전시, 2026.7.15.)

홍콩 ASTRI·시티버스, 카이탁 구역서 시내버스 C-V2X 실증 사업 개시

홍콩 응용과학기술연구소(ASTRI)와 시티버스(Citybus)가 카이탁 개발구역에서 이층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셀룰러 기반 차량·사물 통신(C-V2X) 실증 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콩 최초로 노선버스에 C-V2X 기술을 적용해 도로변 스마트 기지국(RSU) 및 정부 데이터 포털과 연계하고, 실시간 교통 신호와 도로 상황 정보를 운전기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C-V2X 기술을 통해 운전 안전성과 교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번 실증을 바탕으로 향후 자율주행 버스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ASTRI / PR Newswire, 2026.7.6.)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 디지털 트윈 사회 구현 위한 '플라토 비전 2026' 발표

일본 국토교통성이 3D 도시 모델 정비·활용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플라토(Project PLATEAU)'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 정착을 위한 '플라토 비전 2026'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데이터 정비·갱신 효율화, 서비스 구현 추진, 해외 진출을 3대 핵심 항목으로 설정하고, AI 생성 데이터 도입과 3D 도시 모델 범위 확장을 통해 최적의 활용 환경을 구축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위성·스마트폰 이미지와 AI를 결합한 3D 도시 모델 자동 생성 및 텍스처 부여 기술을 개발해 모델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관민 협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의 자율적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2026.7.17.)

태국 교통부, EU-아세안 기업인단과 회담…'Safe & Green Transport' 및 미래 모빌리티 협력 논의

태국 교통부가 EU-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실(EU-ABC) 및 유럽 기업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Safe & Green Transport' 전략을 기반으로 한 교통 인프라 발전 및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 정부는 2029~2030년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UN 안전 기준 도입을 확대하고, 레벨 3~5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European Norm 중심의 철도 표준화, 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 전기차 보급 및 탄소 감축 등 친환경·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태국 교통부, 2026.7.17.)

공공조달 발주동향

본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으로, 특정 검색어(ITS, BIS, 교통정보, 첨단교통 등)로 검색된 발주정보('26.7.31. 기준)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임

검색일 이후 등록되었거나 미리 설정한 검색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누락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별도 확인 필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설계가격(원)	입찰마감일
일반용역	2026년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369,300,000	2026. 08. 07.
일반용역	판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 용역(재공고)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47,100,000	2026. 08. 11.
공사	국도36호선 세종시 등 3개소 결빙취약구간 국도ITS 구축공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936,364,000	2026. 08. 12.
일반용역	제3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00,000,000	2026. 08. 25.
일반용역	경남 하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로데이터 수집 및 가상환경 구축 용역 (긴급)	(재)지능형자동차부품 진흥원	150,000,000	2026. 08. 11.

R&D

업무	공고명	수요기관	사업규모	입찰마감일
R&D	2026년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제2차 시행 공고 (국토교통연구기획 사업 內 14개 연구개발과제)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총 1,130백만원	2026. 08. 10.
R&D	2026년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융합탐색) 신규과제공고	경찰청	총 8억원 이내	2026. 08. 10.

경남 하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로데이터 수집 및 가상환경 구축 용역 (긴급)

일반사항

과 업 명 : 경남 하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도로데이터 수집 및 가상환경 구축

기　　간 : 계약 후 120일 이내

소요예산 : 금150,000,000원 정도(금일억오천만원 정도, 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과업목적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수행중인『초안전 주행플랫폼 실용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활용 가상환경 시험 기반구축』과제에서 구축되는 VILS 가상환경시험장비들을 활용하여 실내 VILS 시험평가 서비스 제공
- 경남 하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구간을 대상으로 정밀도로지도, 표준 도로망(ASAM OpenDRIVE) 및 3D 디지털트윈 환경 구축
-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최신성 및 선형 연속성이 미비한 구간은 이동측량(MMS) 방식의 실측 데이터로 보완·후보정하여 고정밀 입력 소스를 마련하고, 이를 표준 규격의 정적 도로망과 3D 가상 주행환경으로 구현

사업내용

- 과업대상 구간에 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도로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데이터 구축
- 후보정된 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곡률·헤딩 연속성과 차로·표지 등 도로 요소를 보존한 ASAM OpenDRIVE 표준규격의 정적 도로망을 작성
- 표준 도로망과 동일한 좌표를 기준으로 건물·도로·시설물·식생 등 3D 객체로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

문의처

과업문의 김혜지(053-670-7919), 입찰문의 손형일 (053-670-7814)

ITSK NEWS

ITS Korea, 고용노동부 인력양성사업 **성과평가 2개 부문 최고등급(S등급) 달성**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 Korea')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성과평가」에서 산업맞춤형(정부전략) 공동훈련센터와 하이테크형(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2개 부문 모두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부문에서는 5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으며, 사업 수행 이후 누적 총 7회 S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ITS Korea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로서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AI 특화*** 분야의 재직자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 정책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첨단 신기술 확산에 대응해 재직자의 신기술 직무전환과 산업전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모빌리티 산업의 AX, 즉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과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이번 평가는 전국 총 106개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ITS Korea는 협약기업 훈련 참여율, 참여기업 만족도, 산업 수요 및 진단·로드맵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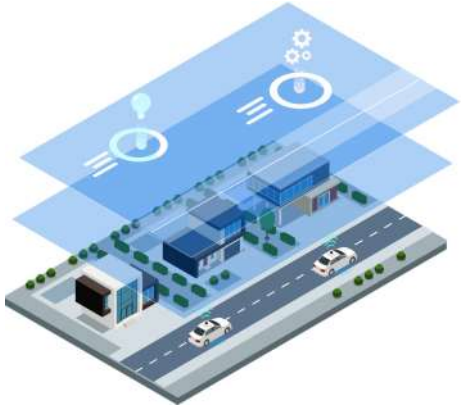
현재 협회는 AI,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약 1,4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015년 사업 개시 이후 누적 교육생 12,000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ITS Korea는 올해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며, 모빌리티 산업의 AX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AX 일반 및 전문분야 6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주요 과정에는 ▲바이브 코딩 기반 모빌리티 AX 실전 ▲비전 및 데이터 AI 활용 역량 강화 ▲AX를 위한 데이터 중심 운영 기술 ▲AI 기반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등이 포함됐다.

ITS Korea는 이를 통해 모빌리티 기업 재직자가 AI 기술을 실제 업무와 서비스 개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청회 ITS Korea 회장은 "산업맞춤형과 하이테크형 두 부문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ITS Korea의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와 연계해 AI·모빌리티 융합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첨단교통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교육 일정 안내

2026년 8월 교육일정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인원	교육비
1	CCTV 입력정보 처리방식에 따른 영상처리	8.05(수)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120원
2	ITS 사업 감리 업무 요령(초급)	8.07(금) 1일(08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32,110원
3	교통정보 빅데이터 DB 설계	8.10(월)~11(화)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14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53,790원
4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보호	8.11(화)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250원
5	자율주행 정책 및 기술	8.12(수)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3,590원
6	영상기반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8.13(목) 1일(05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19,440원
7	공유 모빌리티 기술	8.14(금)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4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090원
8	ITS 사업 감리 업무 요령 (중급)	8.18(화) 1일(08h)	협회 교육장 (604호)	16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32,110원
9	AI 기반 자율주행 딥러닝 인지 기술 구현	8.18(화)~20(목) 3일(21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무료
10	ITS 무선장비 구축 및 운용방안	8.19(수)~20(목) 2일(14h)	협회 교육장 (604호)	12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55,690원
11	AX를 위한 데이터 중심 운영 기술	8.19(수)~21(금) 3일(18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무료
12	측위 기술과 ITS 시스템 활용	8.21(금) 1일(05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0,340원
13	C-V2X 표준	8.25(화) 1일(08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30,970원
14	디지털트윈 구축용 Mesoscopic 모델 구축 실습(초급)	8.25(화)~26(수)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3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65,110원
15	Apache Kafka 활용 교통센터데이터 모니터링	8.26(수) 1일(07h)	협회 교육장 (604호)	15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7,500원
16	미래 교통 UAM 기술	8.27(목) 1일(06h)	협회 교육장 (604호)	17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4,400원
17	디지털트윈 구축용 Mesoscopic 모델 구축 실습(중급)	8.27(목)~28(금) 2일(16h)	협회 교육장 (604호)	13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65,110원
18	자율주행 검증·평가 구현 기술	8.31(월) 1일(7h)	협회 교육장 (604호)	13명	• 우선지원기업 : 무료 • 대규모기업 : 28,020원